

# 學生 優位時代의 登場

卞 烘 圭

(全北大 教育學科)

美國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의 대학은 교수의 세력이 쇠퇴하고 消費者로서의 學生勢力이 강력해지는 변화를 겪고 있다. 이 같은 學生優位의 消費者時代가 도래함에 따라 韓國의 대학도 能動的 生産者로서의 학생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수 있는 교육서비스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 I. 序 論

大學의 主人이 누구냐의 문제가 심심치 않게 거론되고 있다. 누가 대학의 主人인지를 斷言하 기란 그만큼 쉽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主人觀이 어떠한가에 따라 그 답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을 設立한 주인이 누구냐를 근거로 한다면 經濟的으로 대학을 設立·經營하는 財團側 또는 政府側이 될 것이며, 반면 실제 大學教育의 主體가 누구냐에 근거해 보면 대학의 주인은 분명히 敎授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大學存立·維持의 근거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두고 보면 이때 대학의 주인은 學生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대학이 그 本來의 機能을 수행할 대상이 곧 학생이며 또 학생은 대학의 財政을 조달하는 주된 원천이 되고, 대학의 社會的 名聲이나 評價가 그들의 質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학생을 優先視하는 추세는 최근 美國과 다른 나라 및 우리 나라 대학에서 드러난 學生勢力의 優勢 때문에 한층 강력해지고 있다. 美國의 경우 '70년대 초반까지는 大學만 設立되면 學生은 거의 얼마든지 모여 들었다. 그러나 그 이후 學生志願의 激減이란 엄숙한 사태에 직면하여 대학은 學生募集에 곤란을 겪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70년대에 이미 200~300개 私立大學과 初級大學이 폐쇄, 합병, 財團移管이 되었고, '80년대에 다시 200~300개 大學이 그와 같은 폐쇄, 합병, 移管의 과정을 밟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Fadil and Carter, 1980).

또 女性이나 소수집단 및 成人層 학생이 증가하여 대학의 學生構成이 변화되고 아울러 학생의 學習態度나 動機도 바뀌어 대학의 변화를 한층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새삼스럽게 대학의 存立·維持·發展의 근거가 학생이라는 점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學生勢力的 變化라는 현상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아직도 大學만 있으면 學生은 얼마든지 모이는 好景氣를 누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 傾向이 앞으로 10년 이상 계속될 것인가를 反問해 본다면 반드시 肯定的인 답이 나올 수 없다는 전망이다.

가령 대학 졸업자의 失業率 증가, 就職 위주로 학과나 대학을 선택하는 경향, 定員未遂이 증가되는 初級大의 실정을 보더라도 대학이 學生募集에 있어 앞으로 10년 이후까지 오늘날처럼 好景氣를 누리게 되리라는 기대를 어렵게 한다.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도 學生의 勢力이 점점 강력해지고 그 위치가 새롭게 구축됨으로써 대학의 變化가 초래될 경향이므로 學生에게 이에 相應한 教育 서비스를 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 본다.

Riesman 이 1980년에 출간한 *On higher education — The academic enterprise in an era of rising student consumerism* 은 이러한 時點에 있는 우리에게 좋은 示唆을 주리라 믿는다. 왜냐하면 그는 이 책을 통해 대학에서 學生이 消費者로서 그 세력을 증대해 가면서 美國 大學을 變化시키고 있는 오늘의 狀況에 對處할 바람직한 方向을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大學도 그 나라와 같은 새로운 學生 消費者 時代가 예고됨에 있어서 Riesman 의 觀點과 提案들이 우리의 對策樹立을 위해 큰 도움을 줄 것이라 본다.

이 글은 이러한 취지에서 그의 책을 概觀하면서 우리의 變化를 點檢하고 필요한 示唆點을 찾고자 하는 시도에서 쓰게 되었다.

## II. 教授優位時代의 쇠퇴

이 책의 核心的인 내용은 1970년 전반을 기점으로 미국 대학에서 세력을 누리고 있던 教授集團의 영향력은 쇠퇴하고, 學生의 세력이 증대되어 學生이 대학의 主權을 장악하게 된 이른바 學生中心의 '消費者主義(student consumerism)' 時代가 등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相應한 대학의 운영과 教育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Riesman 은 Jencks 와 공동으로 이

책에 앞서 1968년 *Academic revolution* 이란 책을 저술한 바 있다.

여기에서는 '60년대말까지 美國 대학에서 權限을 행사하면서 美國 대학을 主權해 온 세력은 總長과 理事會 및 그 執行機關인 行政當局이었는데 이들의 세력과 권한이 쇠퇴하고 이때부터 教育과 研究機能을 책임지는 전문적인 教授集團의 세력이 강하게 등장하여 大學運營에서 主權的 역할을 담당하게 됨으로써 이른바 學問研究集團의 大變革, 즉 academic revolution 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大變革은 1890년에서 1910년까지의 20년 사이에 教授集團의 忠誠과 權力의 기초로서, 또 대학의 基本單位組織으로서 學科(departments) 나 學問領域(academic disciplines)이 성립되던 기간에 이루어졌다고 한다. 1960년 후반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教授의 세력이 절정에 이르러 교수 등의 없이는 대학의 重要政策이나 意思決定을 할 수 없게 되었으며, 總·學長이나 理事會, 또는 學長이 임명하던 行政職 또는 管理職까지가 점차 교수에 의해 선발하게 되었다는 지적이다. 이렇듯 교수의 권한이 대학의 行政 또는 管理當局에 의해 무시될 수 없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황에서는 학생도 교수의 規範이나 판단에 전적으로 복종하게 되었으며 교수의 價値觀을 자기의 가치관으로 內面化하는 것을 당연한 모습으로 받아들였다. 한편 교수도 학생을 자기의 下位文化(subculture) 속에 統合시키고 自己體制 속에 머물도록 강요하는 것이 普遍化되고 있었다고 한다. 이리하여 교수는 학생을 거의 자기 뜻대로 통제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教授優位의 時代가 1960년대말부터 바뀌기 시작하여 教授의 영향력은 쇠퇴하고 學生勢력이 대학을 支配하는 變化를 초래하게 되었다고 Riesman 은 1980년의 책에서 지적하고 있다. 그래서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교수가 대학의 行政 또는 管理에 있어서 또는 학생을 통제하는 데 있어서 과거에 누리던 權力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 한다. 學生勢력이 教授集團의 세력보다 浮上하게 된 것은 學生紛爭이 광범해지고 越南戰爭 反對運動이 극에 이른 '60

년대의 상황에서 비롯되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Riesman은 이러한 運動 그 자체보다 그 배후에 있는 이른바 對抗文化(counter cultures)를 더 重視하고 있다. 그가 말하는 對抗文化란 一切의 個人的·組織的 制約으로부터 해방되려는 이데올로기文化로서 이러한 문화가 그 같은 學生活動의 배후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위에 靑年人口의 감소라는 人口動態的인 변화가 加重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一切의 制約으로부터의 해방을 추구하는 운동은 특히 '60년대 말부터 성행해서 學生 主導下에 講座가 설치되고 學生代表의 요구가 대학의 意思決定에 반영되거나 그들이 그 결정에 직접 참가하게 되었으며 또 학생들이 教授의 要求와 履修條件에 대해 완화를 추구하고 교수의 講義에 대해 학생의 評價가 반영되며 심지어 教授採用이나 昇進에 있어서까지 학생의 評價가 또는 그들이 직접 參加하여 영향을 미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렇게 되자 大學側 또는 教授側에서는 학생의 그러한 요구에 대해 妥協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러한 學生運動의 대두는 '60년대 후반부터의 出生率 저하와 '70년대에 들면서부터의 대학 進學率의 低調現象 등과 병행됨으로써 더 심각하게 나타나 과거에 보이던 學生急增 현상은 사라지고 學生募集에 어려움을 겪게 된 대학이 증가하고 대학의 폐쇄·합병·이관의 사태가 속출하였다는 것이다. 학생모집에 어려움을 겪게 된 대학에서는 公·私立을 막론하고 非選拔的方法으로 學生入學을 허락하게 되었으며 이들 대학은 학생에게 매력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대학의 存立이 좌우되게 되었기 때문에 학생의 市場支配力(market power)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1980년대 美國의 大學教育에서는 '60년대와는 달리 대학이 低姿勢로 학생의 입학을 간청하게 되었고, 학생은 정중히 환영을 받는 고객으로 位置를 굳히고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그동안 학생을 거의 마음대로 統制하고 이사회나 행정당국에 대해서도 그 힘을 크게 발휘하던 교수의 主導權은 쇠퇴되고 대학의 고객으로 등장한 학생이 高等教育의 市場支配力을 강력하게

행사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高等教育의 市場은 종래와 같이 教育이라는 서서비스를 파는 大學優位의 販賣市場으로부터 學生優位의 購買市場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다.

### Ⅲ. 學生消費者主義의 發達

이와 같이 교수의 權限이 쇠퇴하고 學生勢力이 새로이 대학의 主導權을 잡게 된 상황을 Riesman은 消費者인 學生中心主義 또는 學生消費者主義, 즉 student consumerism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學生勢力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본적인 성격은 消費者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消費者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生産者에 對立되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학생은 消費者로서 자기가 자기의 大學教育을 주체적으로 처리해 가는 能動的인 生産者로서가 아니라 大學이라는 academic supermarket에서 제공하는 教育서비스를 受動的으로 받는 소비자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소비자로서의 학생은 受動性(passivity)을 그 특성으로 하고 있으며 그것은 자기가 자기 자신의 教育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또 이들 受動的인 消費者인 학생은 自發的으로 행동할 수 없는 포로(involuntary captives)와 같은 存在로서 자기들의 教育에 있어 一種의 기쁨을 느끼기보다는 大學教育이 요구하는 學歷이나 資格을 얻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공부하도록 강요되는 存在라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美國의 대학 캠퍼스에서 학생이 標榜하고 있는 것은 “最少의 努力으로 자기에게 가장 有利할 수 있는 좋은 成績을 얻는다”라는 데 있게 되었음을 어렵게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變化의 根底에 대해 Riesman에게 이 책의 著述을 의뢰한 前 California 대학교 總長인 Kerr는 學問의 功績(academic merit)에서 學生中心의 消費者主義로 그 價値觀이 바뀌었다고 지적했음을 상기시키고 있다.

이 消費者主義 경향 때문에 美國의 일부 엘리트 指向 대학에서까지도 學部課程은 이미 知的 活動의 장소로서의 위치를 상실하였으며 단순히 醫大나 法大와 같이 學部卒業 후 專門職養成大

學(professional schools)으로 가는 過渡的 과정으로 인정하는 學生의 數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分析이다. 이들 학생은 열심히 공부한다는 점에서 보면 能動的이라 할 수 있지만 졸업 후의 就職에 유리한 것이 무엇인가의 打算을 초월하여 自己教育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存在라는 점에서 는 受動的임에 틀림없다. 더 나아가 이들 학생이 그들의 學習에 대해 知的으로 干涉할 수 없다는 점에서 受動的이라 보아야 하는데, 실제 이 현상은 이미 옛날부터 학생이 자기 공부에 있어 教授와 직접 간접으로 상의해서 實用的이고 功利主義의 教育을 지향해 왔던 경향이 있었다.

Riesman은 학생이 消費者로서 市場支配力을 강화해 감에 따라 나타날 여러 가지 不利한 영향에 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즉 학생들은 그들의 發言權이 강해짐에 따라 一切의 必須科目이나 履修要件을 거부하고 최소의 노력으로 좋은 成績을 얻으려는 安易한 學習節次를 疎略히 하기 때문에 이른바 “惡貨가 良貨를 驅逐한다”는 Gresham 法則의 방향을 현저히 들어내게 되었고, 따라서 대학교육의 質의 低下가 초래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한다. 뿐만 아니라 學生勢力의 強化傾向은 敎수의 士氣低下에도 크게 영향을 주게 되었는데 이는 敎수가 學生市場의 確保를 위해 치열한 경쟁장에 나가 싸워야 하고 敎育內容이나 敎育方法까지가 학생의 嗜好나 요구에 따라 그 方向을 달리해야 한다는 현실에서 이미 확인되고 있는 터이라는 것이다.

Riesman이 1980년의 책을 쓴 근본의도는 消費者인 학생이 모처럼 얻게 된 대학에서의 市場支配力을 無力하게 낭비하지 말고 자기들의 利益을 위해 현명하게 전환하도록 助言하려는 데 있었다. 그래서 대학교육에서 專門職인 教授集團과 대학교육의 서서비스를 구매하는 消費者인 학생간에 적절한 균형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시 말하면 대학에서 敎수와 학생간에 어느 정도 긴장과 대립의 관계를 지니면서도 서로 協助하여 經驗 있는 敎수가 학생의 敎育에 창조적으로 干涉하는 관계를 유지하도록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關係形成의 필요성은 학생을 단순한 소비자로서가 아닌 能動的인

生産者로서의 태도로 발달시킴으로써 충족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것은 敎수와 학생이 단순히 敎育的인 資格을 파는 자와 사는 자가 되는 관계가 아니라 敎수는 학생을 대함에 있어 敎育서비스를 사는 顧客으로 간주해 대접하고, 한편 學生은 그들 자신의 敎育發達을 이끄는 生産者인 동시에 消費者이기도 하다는 점을 주장한다. 따라서 학생의 敎育發達에 있어 主要 目標 중의 하나는 학생을 한층 能動的인 生産者로 되게 하고, 단순한 수동적인 소비자(receptive consumers)가 되지 않도록 도와 주는데 있다는 見解이다. 비록 Riesman 자신에게는 학생이 이렇듯 能動的인 出發者(self-starter)가 되도록 하는 具體的인 處方箋에 지나지 못했지만 敎수의 士氣低下가 蔓延되고 학생은 될 수 있는 대로 安易한 方法으로 그들이 당연히 얻어야 할 資格을 얻으려는 風潮에 대항해서 싸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결국 Riesman은 '60년대말부터 대학사회에서 뚜렷해진 敎授權威의 쇠퇴와 더불어 나타난 學生消費者主義의 대두는 결코 바람직한 傾向이라고 볼 수 없으나, 이미 소비자로서 새로이 등장하면서 顧客意識을 강화해 가고, 그래서 受動的인 學習者로서 安易한 敎育서비스를 추구하는 傾向에 대해 대학은 단순히 傳統的인 academism 만을 고집하고 종래와 같이 一方으로 敎수들의 規範이나 判斷을 학생에게 강요하는 方法으로는 그들과 對應할 수 없게 되었음을 역설하고 있다.

반면 쉽게 學點取得이나 資格取得을 피하며 모든 敎育的 責任을 대학이나 敎수에게 전가하는 학생에 대해 大學側에서도 原則 없이 妥協만 거듭해서도 안 되거니와 消費者인 이들이 구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가볍게 大量販賣하는 academic supermarket가 되어서도 대학은 그 本來의 機能을 잃게 된다는 경고이다. 긴 眼目에서 볼 때 대학이 敎授中心의 研究重視機關으로부터 學生中心의 敎育重視機關으로 그 위치가 바뀌고 있음에 비추어 앞으로의 대학에서는 학생에게 진실로 利益을 주는 敎育을 실시하는 일이 최대의 關心事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IV. 우리의 展望과 對策

위에서 Riesman의 分析에 따라 美國 대학이 歷史적으로 볼 때 초기에는 財團理事會와 그 行政當局 또는 政府에 의해 지배되어 왔으나, 1900년을 전후하여 專門職인 教授集團이 대학 운영에서 實質的인 權限을 행사하게 되었고, 1970년 후반부터 다시 학생이 대학의 支配權을 갖는 消費者로 등장하게 되었다는 變化過程을 살폈다. 오늘 韓國의 大學教育市場에서도 學生優位の 購買市場이 형성되어 가는 새로운 狀況變化에 처하고 있다면 우리도 일찍부터 여러 次元에서 現實을 점점·반성하며 적절한 對策을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 Riesman의 分析에서 얻어지는 몇 가지 示唆點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韓國의 대학은 학생이 대학의 存立維持 및 發展에 있어 절대적 根據가 된다는 점에 대해 새로운 認識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 학생은 大學教育의 바로 그 對象이며 따라서 학생이 없으면 대학은 그 본래 機能인 교육이 불가능한 것이며, 大學設立에 필요한 資金이 확보되고 좋은 施設設備이 갖추어지고, 또 教授陣이 잘 갖추어진다 할지라도, 학생이 모이지 않으면 대학은 그 設立根據를 잃기 마련이다. 뿐만 아니라 公·私立을 막론하고 대학은 그 財源을 크게 학생에게 의존하고 있으며 대학의 名聲도 엄격히 말하면 학생의 質 여하로 좌우된다. 그러므로 학생이 없으면 그 資金 조달의 길을 잃게 되지만 학생만 모이면 教育을 구실로 학생 또는 社會로부터 그 운영자금을 醜出하고 기부받을 수 있다.

또 우리나라 高等教育機關이 美國과 같이 점차 그 水準이 多樣해 감에 따라 학생의 質 여하가 大學評價의 한 尺度가 되는 경향이다. 물론 대학의 傳統이나 교수의 質 또는 대학의 教育이나 研究의 結果 또는 特色과 같은 요인도 고려될 수 있으나 이들보다 이른바 學力에 의해 評價되는 학생의 질이 그 기본 척도가 된다. 이와 같이 학생이 대학의 가장 기본적인 根據이고 資源인 데도 불구하고 이 점에 관해 우리의 관심이 너무 희박하고 여기에 부수되어 教育이나 학생에

대한 대우가 너무 소홀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反省이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오늘과 같은 異常的인 高學歷心理 때문에 학교만 있으면 학생이 얼마든지 모이는 상황에서 대학을 利潤 높은 企業으로 보고 그것을 통해 어떤 經濟的 利益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아직 강하게 남아 있고 보면 학생에 대해 결코 진정한 教育이 고려되기 어렵고 학생을 商品視할 위험마저 있다. 대학이 건물만 있으면 그 가장 基本이 되는 要件을 갖추고 대학만 있으면 教授는 얼마든지 초빙할 수 있다는 생각, 그래서 학생이 소홀히 다루어져서 教育의 문제를 人間的인 만남보다 形式的 節次나 기계적 처치로 해결하려는 풍토가 造成되기 마련이다. 우리의 대학은 이런 점에서 학생을 대학의 主人으로 보는 認識이 더욱 강해야겠다고 믿는다. 韓國 大學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問題의 해결 실마리도 여기서부터 찾아야 할 것이다.

둘째로, 이러한 認識과 관련하여 學生優位の 消費者時代가 도래하고 있다는 엄숙한 변화도 수용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다. 아직도 韓國의 대학은 大學優位の 販賣市場的 段階에 있으며, 教授가 대학의 實權者의 위치에 있다. 그래서 교수는 대학의 모든 意思나 政策의 결정에 있어서, 대학의 教育 및 研究機能 수행에 있어서 그 밖에 一切의 제도나 기구에 관한 문제해결에 있어 主導的 위치와 權限行使 및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의 要求나 判斷이 학생에게 거의 絕對的인 힘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의 下位文化에 학생을 유치시킬 수 있는 힘이 행사되고 있다고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대학의 기능에 있어 學問的인 研究가 教育的인 教授보다 강조되어 교육보다 學問의 생산이 중시됨으로써 이른바 academism으로 一貫하려는 경향이 짙다. 또 학생의 大學志願이 포화를 이룬 상황에서 대학이 미국에서처럼 가까이 있고, 入學이 쉽기 때문에 또는 학교의 名聲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또는 무조건 대학에 進學해야겠다는 高學歷心理 때문에 너무 우연적으로, 잘못된 情報에 근거해서, 또는 合格단을 目標로 한 의도에서 선택됨으로써 학생이 대학이나 교수 또는 다른 成人들에게서 너무

인색한 指導를 받을 가능성이 한층 짙다. Riesman이 1980년의 책을 집필한 또 다른 중요한 취지도 그러한 狀況 변화에서 학생이 惡德經營者 또는 教授集團에게서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자는 데 있다고 하거니와 우리나라에서도 그와 같은 沒理解的인 사태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措處의 必要性은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학생이 소비자로서 大學教育이라는 產業에서 그 市場支配力을 장악하고 發言權이 강화되기 시작했다는 사실 때문에 한층 커 가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 같다. 美國에서 나타난 學生消費者主義는 이미 日本에서도 확인되고 있음에 비추어(淸水, 1983), 분명히 하나의 歷史的 흐름으로 보고 對備해야겠다는 것이다.

오늘 우리나라 大學卒業者의 失業率은 해마다 增加하는 심각한 실정이며 이와 더불어 일어나는 教育인플레는 장차 大學進學에 대한 再考와 大學의 體制나 분위기를 바꿀 심각한 要因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현재 우리나라는 異常的인 高學歷指向의 心理 때문에 職業別 과잉 學歷者가 급증하여 대학 졸업생의 56%가 高校卒業 水準에 해당하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研究報告가 있고 보면 그들에게 그만큼 갈등이나 不滿, 소외 현상이 있기 마련이며, 이 상황은 대학의 入學에 새로운 회의와 再考를 하게 할 요인이 된다. 또 이미 발생되고 있는 初級大學의 定員未達이나 就職難 같은 현상도 꼭 같이 대학의 變質을 초래할 요인이 되리라 믿는다. 그 위에 학생들의 基本的 態度가 변화되고 있는 예들이 한층 이를 부채질하고 있다. 가령 大學進學率의 增加가 과거보다 많이 둔화되고 있으며 高校卒業者의 대학이나 學科選擇 경향도 많이 流動化되어 入試制度의 변화나 社會經濟的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그들의 進路選擇 또한 점차 확대되고 多樣化되는 흔적이 높다.

또 이들의 進學目的이나 動機가 과거에 비하면 크게 약화되었고 進學後 講義나 課題遂行에 있어 安逸을 꾀하며 學習意慾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는 사실이 실감되고 있으며 그밖에 비록 一時的이기를 바라지만 근간에 社會的 또는 學內的으로 異常的이라 할 만큼 커 가는 학생 發言權

은 學生消費者時代가 한층 촉진되고 있다는 證據라 보아야 할 것이다.

세째로, 이렇듯 消費者인 學生中心時代가 등장하여 학생의 세력이 큰 影響을 발휘하게 됨에 따라 대학 또는 교수가 대비해야 할 주요 課題는 學生中心의 교수 또는 교육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비록 현재는 美國과 같이 학생의 激減으로 인한 대학의 폐쇄나 합병 또는 移管현상은 커녕 오히려 학생의 과잉으로 대학이 黃金時代를 누리고 있다 해서 학생이 조금이라도 經營者나 教授에게서 부당한 대접을 받거나 심지어 Riesman이 지적한 대로 속임수를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傳統적으로 해 오던 바와 같이 academism을 내세워 대학이나 교수가 학생에게 강력한 要求를 하고 決定에 절대 복종하도록 한다거나 또는 그들을 教授의 下位文化圈에 制限시키려는 강요는 우선 오늘의 學生이 受容하지 않기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다. 또 學生이 얼마든지 모인다는 理由 때문에 학생에게 인색한 지도의 기회를 주는 경향도 問題이다. 오늘과 같이 대학에 학생이 포화되어 몇 백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를 하고, 그것도 미약한 교육 시설로 수행하는 여건은 빨리 改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學生의 市場購買力이 높아진 데 相應한 진실된 教育이 실시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대학의 傾向은 학생의 利益을 지키며 教育內容이나 組織에 있어서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학생이 스스로 自己教育의 改善에 參與하도록 현명하고 教育的인 지도를 하는 일에 인색하거나 아니면 그 方法을 等閑視하는 경향이 없는지 反省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大學機能을 고려함에 있어 學生教育보다 學問의 연구를 더 重要視하는 경향에 대해서도 再考해 보아야 할 것 같다.

Riesman의 말대로 學生이 자신의 大學教育을 主體的·能動的으로 영위해 갈 수 없고 대학이라는 academic supermarket에서 제공하는 教育서비스를 受動的으로 받기만 하는 傳統을 그대로 고수하려 해서 안 될 것이다. 오히려 대학을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게 하고, 바람직한 教育을 받게 하며, 自主的 自己教育에의 관

여가 보장되도록 조장되어야 함은 물론, 특히 教授와 學生간에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지는 일이 필요하다. Riesman의 示唆대로 그 基本方向은 학생이 단순한 수동적인 소비자가 아니라 教育서비스를 사는 顧客으로 정중히 대접받고 스스로 自己教育을 통제하며 能動的 生産者가 되도록하는 對策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장기적으로 대학이 현재의 教授中心의 研究重視機關으로부터 진정한 學生中心의 教育重視機關으로 전환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교수의 세력이 쇠퇴되고 學生優位時代가 도래하여 교수의 權限이나 發言權이 약화되고 학생의 權利와 主張 그리고 요구가 크게 수용되어 가는 變化와 함께 한 가지 심각한 現象은 教授의 士氣低下 또는 이와 관련되어 나타날 敎權의 문제이다. 그동안 대학에서 누리고 있던 教授主導的 지위와 권한 또는 역할이 점점 적어지고 있다는 傾向 그 자체가 教授의 士氣를 低下시킬 要因이 되기 마련이다. 여기에 학생 유치를 위해 치열한 競爭에 나서야 하고 또 학생을 체운다 할지라도 학생의 質이 低下됨으로 인해 교수가 教育內容이나 方法에 있어 더 큰 부담을 안고 노력해야 하며 학생의 일반적인 學究的 노력이 줄어 安逸를 추구하는 태도가 크게 부각되었을 뿐 아니라 近者에 점점 강력해 가는 학생의 發言이 入學기준을 낮추거나 成績 또는 學位취득 요건을 완화시키며 심지어 社會機關의 一般補償教育까지를 正規學點으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려는 추세도 같은 요인들이다.

나아가 '70년대와 같은 政府 또는 다른 機關들로부터의 財政支援이나 研究補助費의 격감으로 研究에는 물론 교육의 여건도 과거에 비해 훨씬 不利해 간다는 印象이며, 특히 근자에는 학생의 大量 수용에서 오는 教授上의 難點 등 일보이면 개선보다 事態惡化의 경향이 더 농후하고, 教授 士氣는 결코 低下될 수 밖에 없다. 더욱이 근자에 와서 학생과 사회로부터 자주 봉착하는 敎權 유린적 여러 事例는 한층 교수에게 不利한 여건을 助成하고 있다. 이러한 事態는 장차 학생이 大學의 意思決定이나 政策決定에 관여하고 교수의 채용, 승진 또는 講義評價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날이 멀지 않다는 展望을 하게 한다.

그러므로 학생의 地位가 向上되고 發言이 커간 만큼 학생을 위한 教育도 보장되어야 하지만 教授集團을 위한 士氣진작이나 교권옹호 대책도 크게 고려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대학에서 教育의 主體이며 專門職인 교수와 대학교육의 서비스를 講買하는 消費者인 학생간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對策이 教授 자신들로부터 또는 政府나 社會 또는 財團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V. 結 語

오늘날 韓國의 대학에는 개선해 나가야 할 문제가 山積해 있다고 擧論된다. 大學入試를 비롯하여 卒業定員制에 이르기까지, 教育內容에서부터 教育方法에 이르기까지, 또는 教育施設에서 教育環境이나 教育條件에 이르는 全體制 全過程에서, 특히 學生指導 등에서 손을 써야 할 영역과 과제가 너무 많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여러 가지 視點에서 검토되고 試圖될 수 있을 것이다.

그 한 가지 중요한 출발점으로 提案될 수 있는 것은 대학이 時代와 環境의 變化를 受容해서 社會의 요구와 학생의 요구에 적절히 適應할 수 있도록 되는 길이라 하겠다. 그렇지 못할 경우 대학은 그 社會의 役割을 수행할 수 없고 마침내는 대학이 쇠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이미 대학의 역사가 보여준 敎訓이다. 그러나 盲目的인 變化의 수용, 또는 학생 요구에의 順應이 대학의 存立에 문제를 줄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장차의 韓國의 대학은 어떻게 하면 社會 속의 變化와 학생 요구의 變化에 適應하면서 教授와 研究 및 社會奉仕라는 대학의 機能을 수행할 것인가에 대해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새삼스럽게 학생은 大學存立의 가장 基本的인 資源으로서 대학에 學費를 납부하며 財源을 充당해 줄 뿐 아니라 대학의 重要機能인 教育의 對象 그 자체로서 대학 존립을 正當化하는 根據가 되고, 대학의 名聲이나 評價를 결정짓는 요소라는 점을 再確認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러한 대학 존립의 決定要素인 學生集團의

勢力이 強化됨에 따라 대학이 변화되어 教授優位의 時代는 쇠퇴하고 학생이 대학의 支配權을 장악하는 學生優位의 學生顧客時代가 전망되는 이 시점에서 大學이 과거와 같은 academism 만을 고집하거나 단순한 academic supermarket 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무엇보다 眞實된 敎育을 통해 학생이 能動的 生産者로서 자기 利益을 최대로 꾀하도록 보장하는 길을 堅固히 다지도록 講究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敎授의 權威나 士氣가 결코 저하되지 않는 차원에서 對策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條件이 수반된다. 명실공히 大學優位의 販賣市場이 아닌 學生優位의 購買市場의 가능은 이러한 조건하에서만 이 만족스럽게 成就될 수 있을 것이다. \*

〈參考文獻〉

Fadil, V.A. & Carter, N.A. (1980), *Opening, Closings, Mergers and Accreditation Status of Independent Colleges and Universities Winter 1970 through 1979*, Washington D.C: National Institute of Independent Colleges and Universities.

Jencks, C., & Riesman, D. (1968). *The Academic Revolution*, New York: Doubleday.

Riesman, D. (1980). *On Higher Education—The Academic Enterprise in an Era of Rising Student Consumerism*,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清水畏三 (1983). “大學革命から反大學革命へ—學生消費者時代の到來にどう對處するが,” 「IDE-現代の高等教育」 239.

〈教育資料 案内〉

本協議會 資料室이 비치하고 있는 大學敎育에 관한 資料는 會員 大學人이던 누구나 活用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다. 특히 同 資料室에서는 高等教育에 관한 世界的으로 權威 있는 다음과 같은 誌를 定期的으로 구독하고 있으므로 관심 있는 分들의 많은 利用을 바란다.

| 저널명  | 발간처  | 발간회수               | 소장분                                    |
|--|--|--------------------|--|
| 現代の高等教育<br><i>College Student Journal</i><br><i>Higher Education</i> | 日本民主敎育協會<br>Project Innovation, U.S.A.<br>Elsevier Science Publishers<br>Amsterdam, Netherlands        | 12/年<br>4/年<br>6/年 | 1984年度 이후<br>1983年度 이후<br>1972年度(創刊)이후 |
| <i>Higher Education Review</i>                                       | Tyrrell Burgess Associates<br>Ltd., England  | 3/年                | 1983年度 이후                              |
| <i>Journal of Higher Education</i><br><i>Change</i>                  | Ohio State University<br>Press U.S.A.<br>American Association for<br>Higher Education (AAHE)<br>U.S.A. | 6/年<br>8/年         | 1974年度 이후<br>1984年度 이후                 |